

# 인터넷, 따라하면 쓸 수 있나

##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워... 국내 실정에 맞는 책 골라야

박현정

월간《PC라인》기자

인터넷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타고르고 있다. 한때의 유행이나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문화현상으로 지목되고 있을 만큼 그 기세가 당당하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전세계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인 인터넷 사용을 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체를 중심으로 퍼져가는 이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는 수십만원하는 각종 인터넷 강좌의 매진 사례와 신문사나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인터넷 교육장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입문서 대거 등장

서점가에서도 인터넷 관련서적이 나오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려나갈 정도라니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작년까지만 해도 PC 입문서들이 컴퓨터 관련 베스트셀러 순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인터넷 입문서들이 전체 순위에서도 1, 2위에 기록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식되면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입문서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초보자 대상의 인터넷 입문서들의 공통된 한가지 특징은 '따라하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복잡한 유닉스 명령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워 쓰기'가 어려웠지만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 이하 웹)이 본격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웹은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전세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인터넷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터넷 배우기가 쉬워졌다고 해도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접속해 보고 따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체감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컴퓨터 책들이 갖게 되는 서술의 어려움인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인터넷 입문서

서점가에서 인터넷 서적이

나오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인식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입문서의 공통된 특징은

'따라하기' 방식이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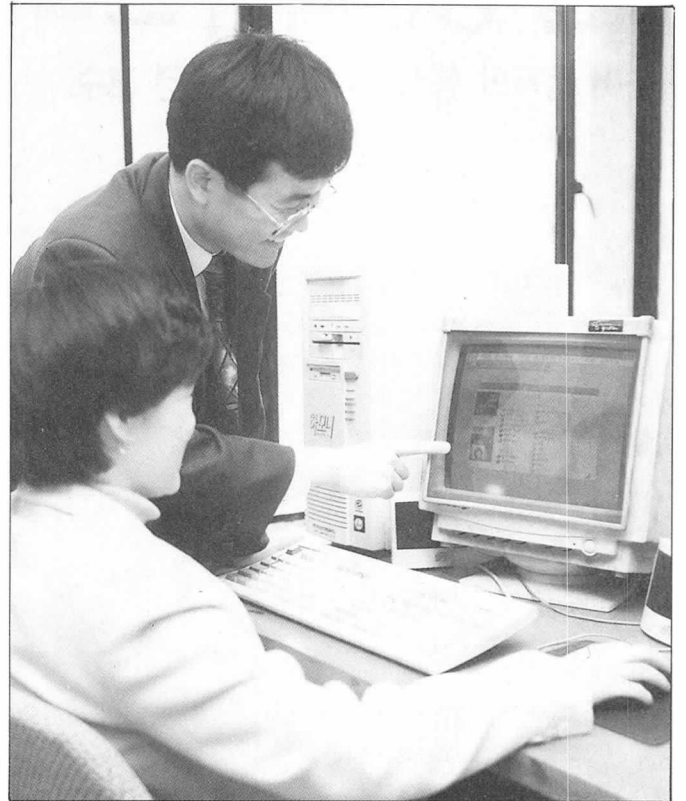
인터넷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는 '따라하기' 방식의 대표적인 책이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실전입문서인 이 책은 출간 즉시 컴퓨터 서적 전체 1위에 올라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통신망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들이 초보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인식, 알기 쉽도록 내용을 잘 구성한 점이 돋보이며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지기 쉬운 내용을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따라하기' 방법의 가장 큰 약점은 자칫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인터넷 채팅에 관한 IRC(Internet Related Chatting)의 설명이 부족하여 초보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국제 전화를 시내요금으로 쓸 수 있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폰(Internetphone)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든다.

그 다음으로 서점가 순위를 지키고 있는 《와우 인터넷》은 다른 인터넷 입문서들과는 달리 압축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실행 프로그램, 네트스케이프 2.0, MS 익스플로러 2.0 등 최신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게임, 바이러스 백신 등을 부록으로 CD-ROM에 담았고 윈도우 95 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인터넷에 관한 폭발적인 관심은 관련 책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컴퓨터나 통신을 하나도 모르는 왕초보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면 《인터넷 자유자재》라는 책이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이 책은 국내 PC통신 '나우누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 인터넷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밖에 인터넷 입문서들로는 《저는 인터넷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인터넷 NO 인터넷 YES》, 《인터넷 때려잡기》, 《자 따라하세요 인터넷》, 《월드와이드웹》《뽕뽕 뚫리는 인터넷》, 《인터넷 쉽게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전세계 4,000개 이상의 웹 사이트와 리소스 정보를 수록하여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 주소록》이나 《인터넷 옐로우페이지》 등이 있지만 검색도구가 워낙 잘 개발된 요즘 이런 책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 웹을 손에 익히는 게 우선

전세계적으로 30만부가 넘게 팔린 인터넷 학습서 《Teach yourself The Internet : Around The World in 21 Days》를 번역한 인포북의 《인터넷 21일 세계여행》과 《인터넷에서 WWW까지》, 《인터넷》 등의 번역서는 비교적 인터넷 서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초기에 많이 알려진 책들이지만 국내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초보자들에게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입문서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고 인터넷 자체도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인터넷 책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다.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인터넷 입문서들이 가장 앞장서서 다루고 있는 복잡한 인터넷 접속 과정은 그저 책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한 후, 웹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웹을 먼저 익히는 것이 좋다. 웹이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 다른 서비스들을 공부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익힐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

### 서점에 나와 있는 인터넷 관련서

| 제목                | 지은이                | 출판사     |
|-------------------|--------------------|---------|
| 인터넷 자유자재          | 안진혁                | 솔       |
| 저는 인터넷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 송인식                | 키출판사    |
| 인터넷 No. 인터넷 YES   | 김민수                | 새로운 제안  |
| 자 따라하세요 인터넷       | 최용일                | 캐드앤그래픽스 |
| 월드와이드웹            | 김종술                | 에스컴     |
| 뽕뽕 뚫리는 인터넷 입문     | 조성주                | 라인리그    |
| 인터넷 쉽게 할 수 있다     | 김근희                | 인포북     |
| 월드와이드웹 주소록        | NRP편저/나우누리ISF옮김    | 미래정보사   |
| 인터넷 옐로우 페이지       | 맥스웰.C 편저<br>조국현 옮김 | 이한출판사   |
| 인터넷 21일 세계여행      | 네일 랜달              | 인포북     |
| 인터넷에서 WWW까지       | 미셸 프레이즈            | 에프윈     |
| 인터넷               | 클라리코스터디팀           | 정보시대    |